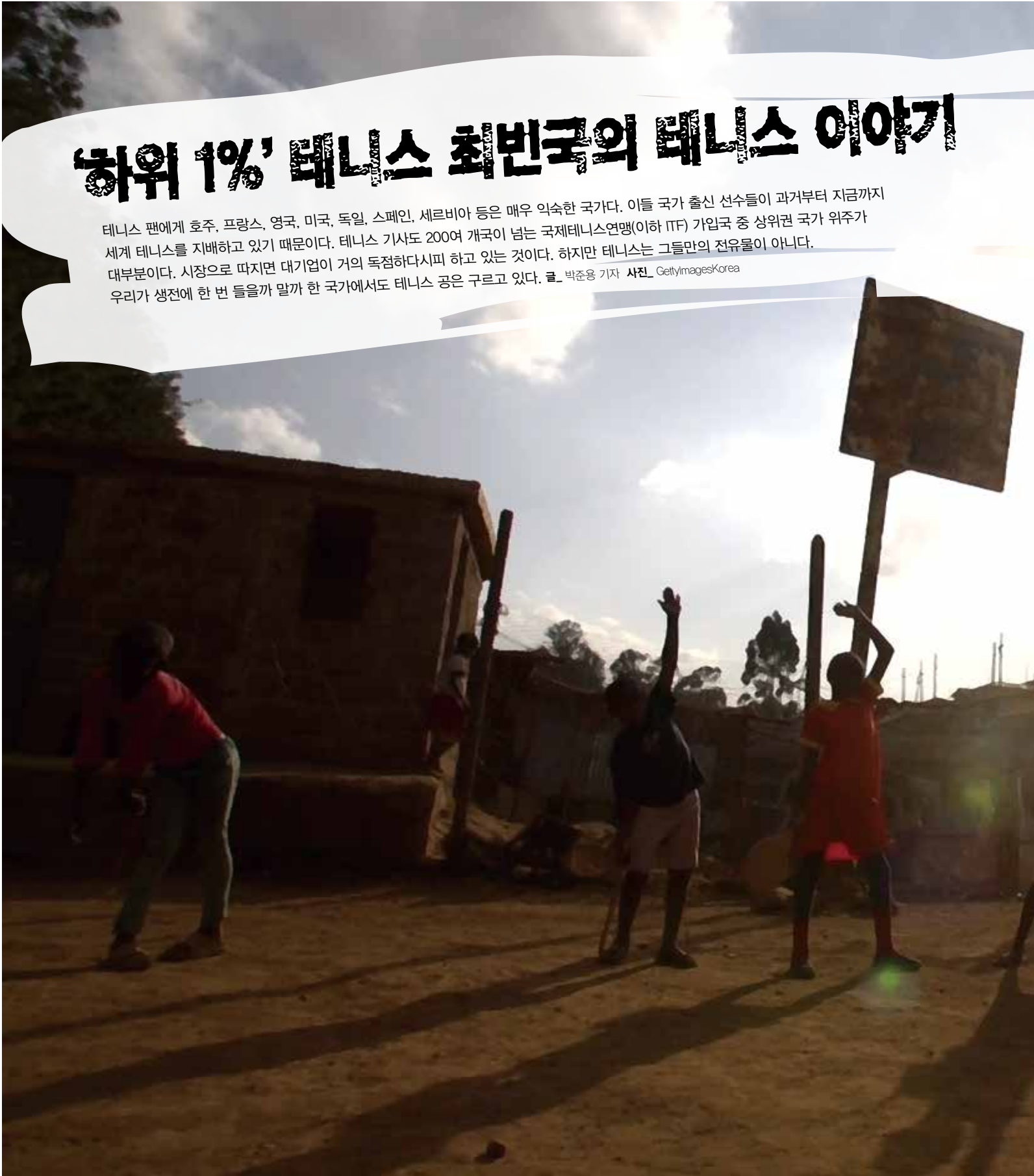


‘하위 1%’ 테니스 최빈국의 테니스 이야기

테니스 팬에게 호주,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스페인, 세르비아 등은 매우 익숙한 국가다. 이들 국가 출신 선수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 테니스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테니스 기사도 200여 개국이 넘는 국제테니스연맹(이하 ITF) 가입국 중 상위권 국가 위주가 대부분이다. 시장으로 따지면 대기업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테니스는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가 생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국가에서도 테니스 공은 구르고 있다. 글_ 박준용 기자 사진_ GettyimagesKorea







캄보디아 데이비스컵 대표팀

테니스에도 국가별 랭킹이 있는 데 8월 13일 기준 129개국만이 랭킹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권에는 아르헨티나,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테니스 강국이 올라있고 하위권은 보츠와나, 카메룬, 방글라데시, 리비아 등 테니스 약소국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카리브해의 작은 섬 안티가바루다, 오랫동안 내전을 겪은 콩고와 코소보는 랭킹 포인트가 0점이다.

석유 부국 중동 국가들도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매년 2월 말 ATP투어 500시리즈 두바이듀티프리챔피언십을 개최하고 있지만 ITF랭킹은 100위다.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이자 재산 40조원의 세계적인 부호 셰이크 만수르는 지난 2008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 구단을 인수하며 큰 화제를 모았지만 테니스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도 ITF랭킹 108위로 고만고만하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테니스 종목에 출전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실력은 우리나라 동호회 수준이었다. 어쩌면 국내 동호인 상위 랭커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국가대표 대접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아시아/오세아니아 4그룹의 상위 포식자 캄보디아

천년의 유산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근접국가 라오스, 베트남처럼 세계 테니스 무대에서 약체 중의 약체다. ITF랭킹은 103위에 불과하고 랭킹 포인트를 보유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2012년에 데이비스컵 데뷔전을 치른 캄보디아는 데이비스컵에서 신입생이지만 적어도 아시아/오세아니아 4그룹에서는 맹주나 다름없다. 지난해 4월에 열린 4그룹 대회에서 캄보디아는 사우디, 미얀마, 바레인, 키르기스스탄 등을 꺾고 A조 전승을 거두며 1~2위 결정전에 진출했다. 이어 B조 2위 오만을 2-0으로 물리치고 2년 만에 3그룹으로 승격하는 기쁨을 안았다. 캄보디아 승격을 이끈 일등공신은 케니 분이다. 올해 27세 케니는 프랑스 혼혈로 최고랭킹은 2012년 7월에 수립한 1080위다. 프로 대회 중 등급이 가장 낮은 퓨처스에서조차 우승한 적 없지만 캄보디아 선수 중 데이비스컵 최다승, 최다 단복식 승리 등을 보유하고 있다. 1000위 내 진입이라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는 캄보디아 내에서는 로저 페더러(스위스)이고 캄보디아는 4그룹에서만큼은 영국이자 미국이다.

또 캄보디아는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게임(SEA) 테니스 개인전 여자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금메달과 은메달이 태국, 필리핀 등 전통의 아시아 강국이 가져간 것을 고려하면 캄보디아의 동메달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캄보디아가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팀 리씨피트 캄보디아 협회장의 노력이 컸다. 캄보디아 테니스 전설 쿤나의 아들인 그는 1970년대 크메르루주 혁명을 피해 10세 때 캐나다로 이민 갔다. 1990년 후반 귀국한 리씨피트는 협회장을 맡으면서 해외 코치를



캄보디아 에이스 케니 분

〈국가별 랭킹 하위권〉

ITF 랭킹	국가	랭킹 포인트
110	파나마	13.75
111	바레인	13.5
112	아르메니아	12.5
113	버뮤다	12.5
114	미얀마	10.5
115	투르크메니스탄	10.25
116	이라크	10
117	방글라데시	8.5
118	산마리노	7.5
119	괌	6
120	르완다	5
121	리비아	5
122	모잠비크	5
123	타지키스탄	4
124	키르기스스탄	4
125	알바니아	3.75
126	가나	2.5
127	카메룬	2.5
128	보츠와나	2.5
128	트리니다드토바고	2.5
130	안티가바루다	0
130	콩고	0
132	코소보	0

초빙해 지도자와 선수들이 선진 테니스 시스템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캄보디아협회는 2010년과 2016년에 ITF가 뽑은 '가장 발전한 아시아 협회'로 선정되기도 했다.



페더러 재단으로부터 교육 및 의료 지원을 받고 있는 보츠와나



보츠와나 어린이들이 테니스를 즐기고 있다



테니스를 하고 있는 코소보 어린이들



최근 보츠와나에서 테니스가 확산되고 있다



코소보 데이비스컵 대표팀

페더러의 관심받는 보츠와나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2017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로 선정된 아프리카 남부의 보츠와나는 ITF랭킹 124위에 올라있는 테니스만큼은 별 볼 일 없는 국가다. 1996년 처음 데이비스컵에 나선 보츠와나는 통산 28승 55패로 패한 횟수가 더 많다. 또한 데이비스컵도 3, 4그룹을 넘나드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데이비스컵에서도 케냐, 알제리, 리비아, 베냉 등에 4전 전패를 당했다. 하지만 열정만큼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 협회에 소속된 클럽이 13개가 있고 테니스협회는 보츠와나 통합 스포츠협회와 프리미어리그 스포츠협회 등과 협력하며 발전을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국 선수 이노센트 티디만과 느사비생 모고포디를 미국으로 테니스 유학을 보냈고 여자 주니어 체고파투스 치앙이 보츠와나 선수 최초로 ITF 주니어 랭킹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2년전에는 넬슨 아만조 보츠와나테니스협회장이 아프리카테니스연맹의 개발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면서 보츠와나 테니스는 날개를 달았다. 아만조는 “앞으로 아프리카 각국은 ITF의 도움을 받아 자체 코칭 시스템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보츠와나 테니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보츠와나는 ‘테니스 황제’ 페더러가 운영하는 페더러 재단으로부터 교육, 의료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데이비스컵 막내이자 꼴찌 코소보

코소보의 테니스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광산을 탐사한 영국인이 코소보에 최초의 테니스장을 지으면서 시작했다. 당시 일부 젊은이들은 테니스를 즐겼지만 라켓과 공 등 장비가 턱없이 부족했고 코치도 없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테니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했고 수도 프리슈티나를 비롯해 페야, 프리즈렌 등 여러 도시에 클럽이 생겨났다. 현재 230명의 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55%가 여자 선수다.

코소보테니스협회는 1996년에 창립되었지만 코소보 사태로 ITF와 유럽테니스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 코소보 사태란 신유고연방으로부터의 분리와 독립을 요구하는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과 세르비아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유혈 충돌사태다. 세르비아 정부군은 코소보의 주민을 무차별 학살하며 코소보의 독립을 강력히 저지했다. 2008년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는 호주오픈 우승 직후 “코소보는 세르비아”라며 코소보 독립에 반대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코소보는 그해 2월 독립했다.

코소보 사태로 코소보의 테니스 인프라 수준은 매우 낮았고 ITF와 유럽테니스연맹(ETA)에서 주최하는 코칭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선수들도 퓨처스 등 프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해 이웃국가의 지역 대회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15년에 ITF와 ETA에 가입하면서 2년전 처음으로 데이비스컵에 출전했지만 성적은 처참했다. 아일랜드, 몬테네그로, 안도라 등과 함께 유럽 3그룹 D조에 속한 코소보는 3전 전패를 당하며 막내의 서러움을 톡톡히 당했다. 또 앤티가바바다, 콩고와 함께 랭킹 포인트가 0점이지만 코소보가 이들 국가보다 경기 수가 더 많아 영광스러운 꼴찌를 차지했다.

현재 코소보의 테니스는 세계 변방 중의 변방이지만 혹시라도 테니스 강국으로 성장해 월드그룹에서 세르비아와 맞붙게 된다면 단순히 지역, 국가적 관심을 넘어 전 세계 테니스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발칸 дер비’가 되지 않을까? 🏆